11 "======

관광활성화 통한 여수 경제 발전 "가장 잘했다"

여수시민 민선 6기 전반기 평가 64점 "대체로 만족" 일자리 창출·박람회장 사후 활용 등 중점 추진 주문

민선 6기 여수시가 전반기 시정평가에서 시민들로부터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으며 후반기 시정 목표 실현에 대한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시민들이 후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등을 주문함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사)여수지역사 회연구소(이하 여사연)가 주관한 민선 6기 주철현 여수시장 출범 2년에 대한 여수시 민의 시정운영 및 만족도 평가에서 '보통이상'인 64점을 받았다. 이는 여수시민 100명 중에 64명 이상이 주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으로,주 시장의 시정 추진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여수시의 설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4일동안 여수시민 19 세 이상 남녀 70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 사에서 시민들은 8개의 조사 문항 중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높

은 만족도인 69점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민원행 정서비스 개선'설문에서 68.6점, '교통환 경 개선'설문에서 68.4점의 만족도를 나 타냈다.

시민과 소통(62.2), 교육정책(62.4), 공 무원청렴도 개선(63.4), 사회복지정책(64. 2)도 보통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 로 조사돼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하반기 2년의 시정방 항을 묻는 조사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31.7%)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23%), 사회복지제도(시설) 재정립 (11%) 순으로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들은 지역 현안인 인구증가시 책(2가지 선택)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일자리 창출(29.4%)', '진학진로 정보제공 등 교육환경 개선(16.2%)'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수

여사연 관계자는 "조사결과 민선 6기 2년 간의 성과는 관광활성화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교통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평가하 고 있다"며 "앞으로 청렴도 상승과 시민소 통, 교육정책,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해 달성한 1300만 관광객 시대를 기점으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을 목표로 관광객 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남은 민선 6기에도 여수 미래비전의 핵심인 해양관광과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을 양대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 여수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주철현 여수시장(오른쪽 네번째)과 송용민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대표 등관계자들이 외자유치 활성화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KEB하나은행 외자유치 공조

협약식 갖고 적극 활동 나서

여수시는 "최근 시장실에서 KEB하나은행 그룹과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주철현 여수시장과 송용민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그동안 갖춰온 해외 주요거점을 활용해 여수시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외국자본 투자컨설팅 시 여수를 우선 추천해 여수시의 외자유치 활성화를 돕게 된다.또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PM(Project Manager)을 운영하고무료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금융수

요가 발생할 경우 하나은행과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협의할 계획이며 향후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해외 투자유치 방안을 기획·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철현 시장은 "해외네트워크 등 다양한 외자투자 노하우를 가진 KEB하나은행과의 공조로 여수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시스템을 적극 가동,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외환은행(KEB)과 합병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이 가진 해외영업망을 인수해 미국, 영국, 일본 등 24개국에 걸쳐 132개의 법인 및 지 점 등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로 피서 오세요" 만성리·운천해변 등 9개 해수욕장 개장

여수시가 만성리 검은모래해변해수욕 장(사진)과 운천친수해변 등 지역 내 8개 해수욕장을 지난 9일 개장하고, 본격적으 로 피서객 맞이에 들어갔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수질 및 토양오염도 검사, 시설물 점검 및 보수, 공중화장실 관리, 해수욕장 주변 청소 등에 나섰으며, 해파리 방지막 등 안전시설 설치도 완료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교육청 자유학기제 대비 교직원 역량 강화 박차

교원 650여명 내달까지 연수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성수·사진) 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11일 여수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자유학기에 운영에 대비해 학교 교육 과정 운영과 교사들의 관심 분야를 고려, 주제별연수 3시간, 교과별연수 3시간을 편성해교원들이선택 참여할수있도록했다.

자유학기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자 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중학교 교원 650여명은 다음달 말까지 주제별 연수와 교과별 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주제별 연수는 사 회변화에 따른 진로지도, 역량기반 교육 과정, 1318 행복한 책놀이, 질문이 있는 하



브루타 수업활용 등 4회 기 연수로 진행하고, 교 과별 연수는 6월 과학교 과를 시작으로 특수교 과까지 12개 교과 연수 를 8월까지 진행한다.

교과 융합 수업을 위해 타교과 연수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하브루타 교수법 전문가인 전성수 교수를 초빙, 지역 중학교 교직원 230명을 대상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한 하브루 타의 활용'이란 주제로 자유학기제 교원 역 량 강화 연수를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성수 여수교육장은 "교사들의 열정과 배움의 자세가 교실수업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자유학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마련해 일선에서 다양한 전문 경험과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광양항만공사, 청렴 콘텐츠 발굴 국민 공모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들이 참여 한 '청렴' 콘텐츠 제안을 공모한다.

9월4일까지 이메일 접수

지난 2014년부터 2년 연속 국민권익위 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공사는 공공기관의 '청 렴·윤리'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국민 제안 을 공모하게 됐다.

이번 공모전은 청렴·윤리경영 관련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국민 제안 대상 분야는 ▲청렴·윤리 관련 제도 개선안 ▲청렴·윤리 관련 행사 및 이벤트 기획안 ▲청렴·윤리 관련 실행 프로그램안 ▲청렴·윤리 교육안 및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은 오는 9월 4일

까지 이메일(ygpa@ygpa.or.kr)로 접수 하면 된다.

공사는 접수된 제안을 평가해 본선 진출작 6편을 선정, 공개 경진대회를 열어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 제안 공개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ygpa.or.kr) 열린항만-국민제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이 번 국민 제안 공개모집을 통해 발굴된 우 수 제안을 적극 활용해 여수광양항만공사 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참 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공사는 이번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상은 50만원, 우수상 2편 각 30만원, 장려상 3편 각 10만원의 상금과 모든 수상자들에게는 공사 사장상을 수여 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화양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외자유치 등 본격 개발 청신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 저 개발사업지구인 여수시 화양면 장 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11일자로 부동 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법 무부고시)됐다.

11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개발답보 상태에 있는 화양지구 개발활성화 목 표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활 용하기 위해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 제 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올 상반기 중 법무부의 화양지구 현지실사 및 투자 이민협의회 안건 상정 및 결정 등 소정 의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전남권에서는 여수엑스포 개최 와 맞물려 지정됐던 여수경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이후 여수화양 지구에 대한 추가지정에 난색을 표한 법무부를 꾸준히 설득해 승인을 얻어 냈다.

법무부고시 투자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내 부동산 중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다.

영주권취득을 위한 투자기준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지역 시행기간은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부동산 투자이민지역 지정은 중화권 자본등 외국투자를 유치해 화양지구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개발 이후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